社 說

편리·이익 초월한 독립 발전 이뤄야

—양·한방 일원화 조치에 부쳐

한방과 양방(보통 우리가 부르는 일반의학)의 일원화 조치를 앞두고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교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연합회는 보사부의 약사법시행규칙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30일 입법예고되었던 약사법시행령이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법제처에 통과되자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이하 전한련)에서는 지난 10일 본교에 모여 '민족의학 사수, 범한의학계 단결'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고, 대전대 한의과생 7명은 13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제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정이 한양방협진제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의학과 양의학의 근본차이점을 도외시하고 있는 처사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도 주지하다시피 한의학과 양의학은 그 발생과정부터 틀리고 교육받는 학문체계도 현저하게 다르다.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범차이점이 없지만, 칠학에서부터 시작해 인간의 체질에 따라 처방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한의학과 개개 질병의 증상을 연구·치료하는 양의학의 공통분모를 애써 찾는다 해도, 일원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도 일원화보다는 한·양의학을 따로 두고, 공통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또 두고있다고 한다.

중요한것은, 이 두가지를 서로 침해하거나 편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결합이나 접목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각각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의 접합점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협조체제와 일원화를 통해 어떤 편리나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알수없지만 한방과 양방의 공평한 발전과 민족의학의 장래를 위해서 불매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특히나 이번 시행규칙이나 예고되어 있는 협진문제가 한방과 양방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요청되어 진다.

본교 한의학과 함께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국과 더불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에서도 차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특정분야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 한의학을 편리를 위해 위축·축소시켜서는 안될것이다. 오히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한양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로의 차이점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의학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이다.

진실규명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일단락된 '용팔이사건'수사를 보며

세칭 용팔이 사건 수사가 일단락 되었음을 본다.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의 배후인물로 밝혀진 장세동 전안기부장을 구속하는 단계에서 검찰은 수사를 매듭지은 모양이다. 당시 양김이 주도하는 강성야당의 출현을 막기위해 야당의원이었던 이택돈, 이택희 의원과 손을 잡고 창당 방해자금 5억원을 주고 정치공작을 지행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87년 통일민주당 창당과정에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47개 지구당 중 18개 지구당에서 벌어졌던 폭력깡패들이 각목난동을 부리며 유혈폭력사태를 일으켰던 이른바 용팔이 사건은 2.12 신민당 돌풍과 제민주세력의 부쟁으로 수세를 거듭하던 5공 군부독재정권이 전국을 공안정국으로 이끌면서 여야의 개헌협상 파국상황에서 내각제합의 개헌 시도가 실패하자 호헌조치를 선언하고 야권분열을 획책하고자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즉 5공 집권세력이 신당창당을 야당간의 파벌싸움으로 오도하기 위해 일부보수야당세력을 앞장 세워 일으킨 안기부의 조직적인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싸고 사건 관련자들이 함구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동원자금의 출처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지난 6년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로운 문민정권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왔던 바 결국 검찰은 배후인물선에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구속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장씨가 자백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대해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인상이 농후하다 하겠다. 안기부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보비를 정보수집을 핑계로 정치인, 교수, 노동자, 학생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정보의 절과 앙에 따라 자금을 뿌려 정치공작을 행해 왔음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이를 속시원히 규명해야 옳을 것이다. 수사의지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진실 규명에는 시공이 있을 수 없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국의 고민을 이해 할 수 있겠다. 수사의 확대와 심화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적으로 종결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검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오히려 5공 세력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을 배려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안기부의 새로운 위상이 한창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과거의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대해 분명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야흐로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국민적 의혹만을 남긴채 기득권의 외압과 정치적 해결수단으로 미지근하게 귀결되어버린 사건이 어디 한두가지였던가를 새삼 생각나게 해서는 결코 아니되겠다. 국민은 더이상 고개를 옆으로 흔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광 고

어떻게 보면 광고는 한 시대의 문화를 송두리째 드러내 보이는 그림이요, 말이며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라도 광고없이 살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광고는 바로 우리들의 생활, 그 자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뽑은 베스트 광고는 대부분 '휴머니즘'이 깔린 광고들이었다. 그리고 한국적인, 우리의 정서에 부합된 경동보일러 '효심'광고가 '92한국방송광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 또한 휴머니즘이 깃든 광고가 이제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광고로 자리잡는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즉 광고는 이제 상품만을 팔기 위한 일방적 외침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공감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정보를 얻는다. 소비자 위주의 풍부하고 진솔한 정보제공, 생산자(기업) 이미지의 긍정적 시각 유도, 인간을 위한,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감이 있는 광고.

"남편 사랑은 가끔 확인 해봐야 한다구요, 남편 귀가시간은 여자하기 나름이예요"의 VTR, 서로 떨어져 사는 부부의 사랑을 세탁기로 표현한 광고, 주차접촉사고를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신경쓰지 마세요"로 이웃사랑을 주제로한 자동차 광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커피, "사람들이 좋다, 아내는 언제나 가까운 친구" 이불에 지도를 그려놓고 두 형제가 엄마 몰래 젖은 빨래를 세탁하는 세탁기 광고, 고맙고 아쉬움을 살짝이 걸어주는 효코파이 광고.

모두가 인간의 정이 깃든 광고들이다. "아버지 힘내십시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 "수습사원, 어디 돈 벌려고 하나요" 등의 기업이미지 광고는 광고 이상의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멋과 위대한 힘을 가진 광고들이다.

이러한 휴머니즘 광고는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본능--인간애의 정신—을 그 바탕에 둔다. 인간적 친밀감, 인간미 넘치는 표현으로 소비자와 공감대를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판매증진에도 도움을 뵈하는 것이다.

광고가 생산자를 위하여 생산과 이익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광고윤리는 일반적인 사회규범 속에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양심과 양식을 통해 광고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기계문명발달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소외는 인간존엄성 상실 등으로 표현, 현대인에게 있어 휴머니즘은 매우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귀중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바로 휴머니즘이며, 인간적인 진실 속에서 광고의 힘은 영원한 꽃이라 하겠다.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라지만 그 꽃은 이제 아름답다는 의미에 더해서 포근하고, 편안하며, 그리고 온은하면서 그윽한 향기가 있어야 한다.

박 용 집

〈동방기획·PR부〉

매체비평

기업과 소비자 이어주는 '휴머니즘'

비핵화 막는 핵폭풍 T.S.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관계

사론

한반도 전역에는 지금 먹구름이 가득차 있다. 91년말 남북 기본합의서 체택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지난 한해 잠정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올해 한미간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따라 다시 실시된 것이다. 지난 1월26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연명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의 명분은 이러하다.

지난해 10월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남북 상호핵사찰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해 온 바 있으나 북한이 아직 뚜렷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은 즉각 북한에 통보되었다.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은 예상대로 강경하고도 단호한 것이었다. 북한 외교부 성명은 팀스피리트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실험전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처하여 북한은 필요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월9일 마침내 팀스피리트훈련의 포성을 울렸고, 북한은 전례없는 '준전시체제'를 선포했다. 이리하여 남북관계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다시 접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7.4 남북성명 이래 통일의 전도를 밝혀주는 역사적 문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또다시 상호비방과 대결로의 역행으로 말미암아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도대체 남북간의 뿌리깊은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을 위한 군축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 양국의 언명대로 북한의 상호핵사찰 지연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설사 북한의 상호핵사찰 지연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핵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첨단 진자무기까지 동원되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일하고도 유효한 수단인가? 그도 아니라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둘러싼 공방과 대치상황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은 북회 4강이 각축하는 동북아를 세계의 안보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지역으로 파악하면서 과거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맺은 군사동맹관계를 지속시키고 이 지역에 일정한 군사력 배치를 유지함으로써 강력한 정치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탈냉전에 대비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수정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신질서의 기본적인 전략 틀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수용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기반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 한반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종속적 군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위계질서유지를 바탕으로 이 지역과 동북아에 대한 안정적 관리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소 냉전 구도하에 남한이 대소전진기지로서 정기적인 군사훈련의 장이 되어 왔다는 현실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탈냉전의 진행과 더불어 비국경제의 상대적 약화를 배경으로 추진되는 '양적 감소와 질적 증강'이라는 특정의 미국의 군사정책이 한편에서는 한국측의 방위비 부담의 증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실현을 위한 미국산 첨단 군사무기의 한국판매이다. 국가 이기주의의 적나라한 추구가 아닌 수 없다.

또한 대소봉쇄라는 공통된 전선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은 과거와 같이 외국 주둔 병력의 무리한 유지가 아니라 지역분쟁의 성격에 따라 그 지역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기동력과 공중해상 수송능력의 강화로 군사력 유지의 형태를 바꾸어 나간다. 탈냉전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축으로 귀결되지 못하도록 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이 신군사전략이다.

이제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동북아 질서재편에 방해가 되고 기본질서의 유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장애물은 당연히 고립화되고 무력화되어야 한다. 대북한 무력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소련의 견제마저 사라진 지금 북한은 과거보다 질적으로 증강된 미 군사력의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폭격이 미 고위관리의 입을 통해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을 배경으로 93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시작되었다. 국방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훈련은 과거와 같은 야외기동훈련 뿐 아니라 지휘소훈련도 병행해 현대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전자전 연습으로 컴퓨터전쟁게임을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 상대방의 군사력을 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군사적 최대주의의 논리. 미국은 핵사찰 이행을 구실로 남북합의서 이행을 가로막고, 핵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더 큰 규모의 핵전쟁 수행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쉼쉬고 땀흘려 일하며 아름답게 꾸미려는 이 눈물겨운 반도의 남단에서 말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고 동북아 군확경쟁에 기름을 부어놓고 웃는 자들은 진정 누구일까? 약육강식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한반도의 군축과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내부의 자율적 과정으로 확보하려는 전 민족적 노력이 더욱 요청될 때다.

남북합의서 무용지물 위기 불러 종속탈피 민족자율성 되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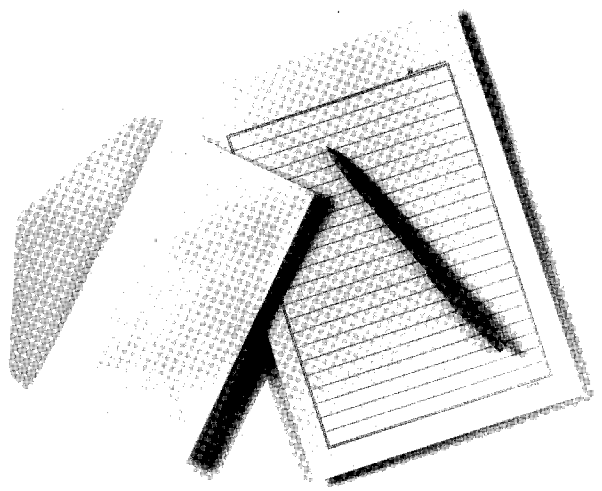
문 부 식

〈평화연구소 연구원〉

(고) (황) (만) (평)

"동의서 좀 줘잉"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곧 하세요!

「93학번 새내기 여러분」
노교수님의 진지한 강의,
선배들의 후끈한 정이 담긴 신입생환영회,
봄기운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신선한 캠퍼스-
대학생이 된 기쁨과 새로운 생활에 정신이 없죠.
그래서인지 우리 혹시 잊고 있진 않은가요?
추운 겨울 밤늦게 마중나와 주시던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용기를 내라며 침세례를 주시던 선생님,
공부시간 줄기만 하면 서로 사정없이 꼬집기로 약속한 반친구들-
그들의 고마움을 말입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봐요.

그것을 받은 그들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더 깊고 소중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